

청소년의 모-자녀 관계와 청소년의 정서적 적응

안 명 희[†]

동덕여자대학교

최 해 립

서강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정서적 적응의 영향요인을 알아보고자 첫째,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가 지각한 모의 애정적 거부와 통제 그리고 이에 대한 모-자녀의 지각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둘째, 모의 애정적 거부에 대한 자녀의 지각과 모-자녀 지각의 차이와 청소년 자녀의 긍정적, 부정적 적응수준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또한 청소년, 어머니, 교사가 지각한 청소년의 적응과 부적응 수준을 비교하여 청소년 정서적 적응에 대한 교사 평가의 유용성을 살펴보았다.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89명과 그들의 어머니 189명, 담임교사 1명이 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이 어머니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애정적 거부를 보고하였다. 어머니는 딸에 비해서 아들에게 유의미하게 높은 적대감과 공격성을 보고하였고 딸은 아들보다 어머니로부터 더 높은 수준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거부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 내현화 문제행동, 전반적 부정적 정서증상의 수준이 높았고, 긍정적 적응기술수준은 낮았다. 또한 어머니의 거부에 대한 모-자녀간 지각의 차이가 클수록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 내현화 문제행동 및 전반적인 부정적 정서증상 수준은 높았고 차이가 적을수록 청소년의 긍정적 적응수준은 높았다.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였다. 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청소년, 어머니, 그리고 교사들의 평가를 비교한 결과 청소년의 평가는 외현화 문제행동, 내현화 문제행동과 전반적 부정적 정서 증상을 포함한 부정적 적응수준에서 어머니나 교사의 평가보다 더 부정적인 반면 어머니는 청소년의 긍정적 적응기술 수준을 교사와 청소년에 비하여 가장 낮게 평가하였는데 특히 청소년의 사회성과 지도력의 부족을 위협수준으로 평가하였다. 교사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평가와 일치하여 교사의 시각은 청소년의 적응과 문제행동 평가에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어 : 청소년, 어머니의 거부, 정서적 적응, 지각의 차이

[†] 교신저자 : 안 명 희, 서울시 성북구 월곡동 23-1번지,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E-mail : mhahn@dongduk.ac.kr

최근 대상관계 이론 및 애착이론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가까운 대인관계의 심리적 특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가까운 관계로 여겨지는 부모-자녀관계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 관계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찾아보려는 것이다. 관계이론(Lollis & Kuczynski, 1997)은 부모-자녀 관계를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축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긴밀하고 상호 의존적인 장기적 관계라고 정의한다. 부모-자녀의 관계는 양방의 정서적 역동 안에서 일어나며 여기서 일어나는 대인지각, 행동, 감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패턴 또는 차이가 이 관계의 특성을 보여주며 또한 이 관계의 특성은 아동 청소년의 정서적 적응에 대하여 의미 있는 설명을 하여 준다(Ahn, 2004).

부모-자녀 관계는 서로가 상호 영향을 주고 힘의 갈등을 겪는 양방적 관계이다. 따라서 서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영향에 서로가 민감하다. 행동뿐만 아니라 감정과 사고에서도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다. 부모는 사회화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완수하고 자녀는 부모의 요구에 반항하고 혹은 흥정하며 자신의 사회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원과 힘을 사용한다(Ahn, 2002). 자녀가 그들의 사랑, 인정, 지지, 지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강한 영향력을 가진다. 자녀 또한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력을 갖는다. 부모가 그들의 사랑, 지지, 생성성을 완수하려면 부득불 자녀에게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Kuczynski, Marshall & Schell, 1997). 따라서 부모와 자녀의 욕구는 양방적 관계 안에서 채워질 수 있고 이 관계를 지속해야 하는 이해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우정으로 표현되는 친구 관계는 변화가 가능한 “개방된(opened)” 관계이지만 부모-자녀 관계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로 가족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되어야 하는

“폐쇄된(closed)” 비자발적인 그리고 영구적인 관계이다(Laursen & Collins, 1994). 그러므로 부모 자녀의 관계, 특히 정서적 관계에 대한 지각의 일치하는 부모-자녀가 최적의 정서적 유대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서로에게 취약하면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부모와 청소년이 그들의 관계를 상이하게 지각할 때 불신과 혼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의 적응에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Pelton & Forehand, 2001). 따라서 부모와 자녀는 이 지각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흥정하고 타협하면서 지속적인 연대를 유지해야 한다. 한편 정서적 관계에 대하여 부모-자녀의 불일치한 지각은 문제 있는 부모-자녀관계의 반영일 수 있으며 자녀는 정서적으로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Ahn, 2002). 부모-자녀 관계와 아동발달과 적응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나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의 정서적 질은 아동 발달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며 독립성, 자존감, 도덕적 발달, 불안, 행동장애, 학교적응, 성취도와 같은 변인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다(Demo, Small & Savin-Williams, 1987; Litovsky & Dusek, 1985; Maccoby & Martin, 1983; 김희영, 1996; 송경섭, 1996; 이지윤, 2000).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중요한 정서적 차원들과 관련하여 부모와 청소년의 상이한 지각은 청소년의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Ahn, 2002). 청소년기에는 특히 여러 영역에서 부모-자녀간의 갈등이 일어나며 이러한 갈등은 지각 차이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지각 차이를 더 벌어지게도 한다. 청소년은 부모의 권위에 대한 합당한 수준을 재평가하게 되고, 여러 가지 세세한 개인적 문제들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율성의 정도, 가족 내에서의 종속적인 자신의 위치, 자신에게 요구되는 적절한 행동에 대하여 질

문을 던지게 된다. 성, 친구문제를 비롯하여 방청소, 용돈, 머리/의상 스타일, 의사결정, 부모의 처벌에 대한 위협, 순종 요구 등등, 부모와 청소년의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갈등과 지각의 차이가 일어날 수 있다(Smetana, 1988.). 청소년-부모의 지각 차이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 행동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보고가 상이할 때 자녀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에 대하여 의미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부모는 청소년보다 부모-자녀 관계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더 낮은 수준의 갈등의 강도와 빈도를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Holmbeck & O' Donnell, 1991). 청소년과 부모는 의사소통의 차원에서 지각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비행(Davey, 1993, 1994), 문제행동(고성애, 1998), 반발심 및 문제행동(이상수, 2001)과 관련이 있다. 또한 가족기능에 대한 부모-자녀간의 지각의 차이는 불안과 우울과 높은 관계를 보인다(Ohannessian, Lerner, Lerner & von Eye, 1995). 가족 내의 의사결정 및 자율/통제에 대한 부모와 청소년의 지각의 차이를 연구한 6개월 단기 종단적 연구(Holmbeck & O' Donnell, 1991)결과에 따르면 지속적인 지각차이는 청소년과의 갈등을 증가시키고 가족 내의 응집을 감소시키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감소, 내면화된 또는 외현화된 부적응 행동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또한 자율성에 대한 청소년과 어머니와의 지각 차이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보고하는 갈등의 수준과 관련이 있었다.

부모-자녀의 정서적 관계에서 특히 어떤 영역에서의 지각 차이가 청소년의 적응에 중요한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의 발달과업과 능력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이해하는 순응적 양육(Belsky, 1984)은 자녀의 정서적 신호에 민감하며 일관성 있는 훈육과 특히 온정적인 표현에 인식하지 않는다. 자녀가 정서적 안정,

행동적 독립, 사회적 유능성, 지적 성취 등 여러 가지 발달적 과업을 이루려고 할 때 순응적 부모는 자녀가 안정감을 갖고 긍정적 정서적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Kobak & Sceery, 1988). 순응적 양육은 자존감 내면적 통제, 사회적 지향, 지적성취와 정적인 관계를 갖는다(Hoffman, 1982). 반면에 자녀에게 순응을 잘 하지 못하는 부모-자녀 관계에서는 청소년의 자아가 불안정하고 자존감이 낮으며(Harter, 1990), 만성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고(Dix, 1991) 정서통제의 문제를 가진다(Kobak, Ferenz-Gillies, Everhart & Seabrook, 1994)는 연구결과가 있다. 한편 부모와 청소년 간의 갈등과 같은 외현적인 문제에 대한 지각의 차이는 흔히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만 감정적 친밀도와 같은 내면화된 문제에 대한 지각의 차이는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내면화된 문제에 대한 지각의 차이가 청소년, 특히 여자 청소년의 정서적 어려움을 더 많이 일으키는 원인으로 보고되었다(Paikoff, Carlton-Ford & Brook-Gunn, 1993).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부모-자녀 관계의 한국의 연구는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과의 관계 연구이다(김희영, 1996; 송경섭, 1996)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부모의 입장에서 또는 자녀의 입장에서 지각한 일방적인 연구들로 부모-자녀 입장에서 동시에 양방향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편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태도나 행동 혹은 부모가 말하는 자녀들의 태도와 행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는 주로 간이정신건강 질문지를 사용한 현황에 관한 보고이거나(임난영, 1987; 이재인, 1993; 원유진, 1999) 정신건강과 자아분화 및 자아존중감(손병환, 1999), 비합리적 신념(최귀화, 1999), 신체적 건강과의 관계(김순옥, 2000), 스트레스 대응과 같은 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

분이다. 청소년의 정서적 적응이 부모-청소년의 관계의 질, 즉 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지각, 행동, 감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다룬 구체적인 연구는 별로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에 대한 청소년 자신과 모의 지각을 이해하고 이와 같은 관계지각이 청소년의 정서적 적응에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와 교사를 대상으로 첫째, 어머니의 애정적 거부와 통제에 대한 청소년과 어머니의 지각을 평가하여 모-자녀의 관계의 질을 살펴보았다. 둘째, 청소년의 적응을 내면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그리고 전반적 부정적 정서증상을 포함한 부적응수준과 긍정적 적응기술수준으로 측정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애정적 거부가 청소년의 정서적 적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넷째, 청소년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애정적 거부와 어머니 자신이 평가하는 자녀에 대한 애정적 거부의 차이와 청소년의 정서적 적응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다섯째, 청소년의 적응 수준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평가를 포함시켜 이를 청소년과 어머니의 평가와 비교하였다. 교사는 깨어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들의 또래관계나 사회적 기술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어 청소년의 적응평가에 중요한 정보원으로써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 대상과 절차

본 연구는 서울시내 7 개교에 재학 중인 중학

교 1, 2, 3학년과 고등학교 1, 2학년 305명과 그들의 어머니와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담임선생님이 비교적 학급학생들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다고 생각되는 학년 말인 2002년 12월 13일부터 2003년 1월 9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305명중 응답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한 응답 자료를 제외한 189쌍의 청소년과 어머니, 그리고 15명의 담임교사가 각자 평균 10명-20명의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한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189명의 학생 중 남학생은 97명(51.3%), 여학생은 92(48.7%) 중 학생은 84명(44.4%), 고등학생은 105명(55.5%)이었다.

측정도구

부모의 수용/거부 질문지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PARQ)

청소년과 어머니가 평가한 모의 애정적 거부와 통제는 73문항으로 된 자기보고식 질문지인 부모의 수용/거부 질문지(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PARQ)(Rohner, 1999)의 자녀용(Child PARQ)과 어머니용(Mother PARQ)을 각각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학생용은 제2 저자가 한국어로 번안한 것을 2인의 상담심리사가 표현을 수정하였으며 이 번안을 다시 제1 저자가 영어로 역번역하여 원문과 대조하여 완성하였다. 어머니용 질문지는 Ahn(2002)이 원저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하고 자격증이 있는 한국어-영어 교사 두 명이 한국어로 번안한 것을 다시 역번안하여 학위논문에서 사용하였던 것을 사용하였다.

Rohner(1999)는 이 질문지의 평균 내적 신뢰도를 자녀용은 .83, 부모용은 .85로 보고한다(새인용 Ahn, 2002). 자녀용과 부모용 둘 다 같은 반응 형식과 채점방법을 사용하며 “거의 항상 그렇

다”, “가끔 그렇다”, “드물게 그렇다”, “거의 아니다”를 4점 Likert-Type 척도에서 반응하도록 하였다. 73문항 가운데 20문항은 온정과 애정(WA: warmth and affection), 15 문항은 적개심과 공격성(HA: hostility and aggression), 15 문항은 무관심과 방임(IN: indifference and neglect), 10문항은 미분화된 거부(UR: undifferentiated rejection), 13문항은 통제(control)와 관련된 것이다. 모의 애정적 거부의 총점은 통제와 관련된 문항을 제외한 총 60문항의 합으로 계산되는데 이때 애정적 거부와 반대되는 개념인 온정과 애정에 관한 문항들은 역채점되어 온정과 수용의 결여로 계산된다. Rohner (1999)에 따르면 거부와 관련된 총 점수 150점 이상은 극심한 거부를 의미하며, 140-149점은 심각한 거부, 60-120점은 상당한 사랑을 받았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PARQ의 Cronbach's alpha는 자녀용이 .91 (WA), .80 (HA), .80 (IN), .83 (UR), 과 .70(Control) 이고 어머니용은 .87 (WA), .73(HA), .55(IN), .67(UR), 그리고 .55 (Control)이다.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The Behavioral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Self Report of Personality Adolescent, BASC-SRP-A)

BASC는 Reynold & Kamphaus(1992)가 개발한 186 문항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현재 안명희에 의하여 한국판 표준화과정 중에 있다. BASC 상에서 청소년의 정서적 적응은 문제 행동수준과 긍정적 적응수준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내면화 문제행동척도(IB) 외현화 문제 행동척도(EB) 그리고 전반적 부정적 정서 증상지표(ESI)로 구성된 3개의 부적응 척도와 1개의 긍정적 적응척도(PA)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 중 내면화 문제행동 척도는 기이한 생각과 경험, 불안, 통제소재, 사회적 스트레스, 신체화 등을 포함하는 문항들을 포함하고 외현화 문제 행동척

도는 청소년의 소외감, 적대감, 학교와 교사에 대한 불만족, 자극을 찾고 위험을 택하는 경향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포함하며 정서적 증상지표는 심각한 정서적 장애의 지표가 되는 우울, 불안, 사회적 스트레스 등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포함한다. 또한 긍정적 적응 척도는 청소년의 적응적 기술을 나타내는 자존감, 자신감, 원만한 대인관계 등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3가지 유형의 부적응 척도 상에서 T-점수 60점 이상은 임상적 부적응 수준을 의미하며 적응척도 상에서 T-점수 40점 이하의 위험수준의 적응기술의 결여를 T-점수 30점 이하는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적응기술의 결여를 의미한다. 영어판 BASC의 평균 내적 일치도는 .80이고 평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0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적응상태를 청소년, 어머니, 그리고 교사가 각각 측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4가지 척도의 T-점수를 청소년, 부모, 교사가 지각한 청소년 부적응과 긍정적 적응 수준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청소년용은 .72, 어머니용은 .69, 그리고 교사용은 .84이다.

통계분석

모-자녀의 관계를 청소년과 어머니의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모의 애정적 거부와 통제에 대한 청소년과 어머니의 점수를 독립표본 t-검증하였고 청소년의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일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모의 애정적 거부와 청소년 적응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모의 애정적 거부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과 모-자녀의 차이를 독립변인으로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 내면화 문제행동, 전반적 부정적 정서증상(이상 부적응 수준)과 긍정적 적응기술 수준에 청소년의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하

였다. 또한 청소년 적응에 대한 청소년, 어머니, 그리고 교사의 상대적 평가를 비교하기 위하여 분산분석과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청소년과 어머니가 지각한 모-자녀 관계의 질

본 연구에서는 모-자녀 관계의 질을 어머니의 애정적 거부와 통제에 대한 청소년과 어머니의 지각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모의 애

정적 거부와 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 (PARQ)에 따르면 모의 애정적 거부의 총 점수 150점 이상은 극심한 거부를 의미하며, 140-149 점은 심각한 거부, 60-120점은 상당한 사랑을 받았음을 나타낸다(Rohner, 1999). 모의 통제에 대한 규준은 제시하지 않아서 모-자녀가 지각한 모의 통제수준은 상대적으로만 비교하였다.

청소년과 어머니가 지각한 모의 애정적 거부와 통제

본 연구에 포함된 청소년 들은 전반적으로 어

표 1. 청소년과 어머니가 지각한 모의 애정적 거부와 통제

		청소년 (C) M(SD)	어머니(M) M(SD)
WA	온정과 애정의 결여	35.07(10.49)	29.19(7.95)
HA	적개심과 공격성	25.96(6.32)	25.55(6.51)
IN	무관심과 방임	16.84(5.92)	14.30(3.82)
UR	미분화된 거부	15.44(4.86)	13.93(3.35)
CMR / MOR	모의 애정적 거부	93.31(22.83)	82.96(14.68)
CMC / MOC	모의 통제	27.16(5.66)	29.56(4.49)

표 2. 청소년과 어머니가 지각한 모의 애정적 거부와 통제의 차이

	청소년(C) M(SD)	어머니(M) M(SD)	차이 M(SD)	t	sig.
WA	35.07(10.49)	29.19(7.95)	5.88(11.10)	7.28	.000***
HA	25.96(6.32)	25.55(6.51)	.41(7.40)	.75	.450
IN	16.84(5.92)	14.30(3.82)	2.54(6.49)	5.39	.000***
UR	15.44(4.86)	13.93(3.35)	1.52(5.22)	4.00	.000***
DMR	93.31(22.83)	82.96(14.68)	10.35(22.43)	6.34	.000***
CMC-MOC	27.16(5.66)	29.56(4.49)	-2.40(5.36)	-6.14	.000***

*p < .05, **p < .01, ***p < .001 (DMR=CMR-MOR)

머니로부터 애정적 거부 보다는 수용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CMR $M=93.31$) 어머니들 전반적으로 자녀들에 대해서 거부보다는 사랑과 수용을 보고하였다(MOR $M=82.96$). 그리고 모의 통제에 대한 지각은 어머니(MOC $M=29.56$)가 청소년(CMC $M=27.16$)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고하였다(표 1).

된 애정적 거부(UR $t=4.00, p<.001$)에서 비롯된다. 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는 모의 통제에 대한 지각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청소년들보다 어머니가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통제를 가 한다고 보고하였다(CMC-MOC $t=-6.143, p<.001$).

청소년과 어머니가 지각한 모의 애정적 거부와 통제에 대한 차이

청소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모의 애정적 거부와 통제에 대한 모-자녀 지각의 차이

모의 애정적 거부와 통제에 대한 청소년과 어머니의 지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한 결과(표 2), 청소년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애정적 거부는 어머니 스스로 보고하는 자녀에 대한 애정적 거부보다 유의미하게 높다(DMR $t=6.34, p<.001$). 이와 같은 유의미한 차이는 온정과 수용의 결여(WA $t=7.28, p<.001$), 무관심과 방임(IN $t=5.39, p<.001$) 그리고 미분화

청소년이 지각하는 모의 애정적 거부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로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어머니(MOR)는 전반적으로 남자 청소년 자녀를 여자 청소년 자녀보다 더 거부한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고($p=.055$) 구체적으로 남자 청소년 자녀에게 여자 청소년 자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적개심과 공격성을 보고하였다(HA_M $t=2.07, p<.05$)(표 3). 또한 어머니 자신은 아들딸 구별 없이 비슷한 수준의

표 3.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모의 정서적 거부와 통제에 대한 모-자녀 지각의 차이

	전 체($n=189$) <i>M(SD)</i>	남 자($n=97$) <i>M(SD)</i>	여 자($n=92$) <i>M(SD)</i>	<i>t</i>	<i>sig.</i>
CMC	27.16(5.66)	26.15(5.36)	28.23(5.81)	-2.55	.011*
HA_M	25.55(6.51)	26.49(7.15)	24.55(5.62)	2.07	.040*

* $p<.05$, ** $p<.01$, *** $p<.001$

표 4.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모의 애정적 거부와 통제에 대한 모-자녀의 차이

	전 체($n=189$) <i>M(SD)</i>	중학생($n=84$) <i>M(SD)</i>	고등학생($n=105$) <i>M(SD)</i>	<i>t</i>	<i>sig.</i>
CMC	27.16(5.66)	28.10(4.86)	26.42(6.15)	2.039	.043*
MOC	29.56(4.49)	30.36(4.77)	28.92(4.16)	2.205	.029*

* $p<.05$, ** $p<.01$, *** $p<.001$

통제를 보고했으나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보다 어머니로부터 더 높은 수준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CMC $t=-2.55, p<.05$) (표 3).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모의 애정적 거부와 통제에 대한 어머니와 청소년의 지각 차이를 살펴 보았는데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모의 통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CMC $t=2.039, p<.05$) 어머니들도 중학생 자녀에게 고등학생 자녀보다 더 높은 수준의 통제를 한다고 보고하였다(MOC $t=2.205, p<.05$) (표 4).

표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청소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모의 애정적 거부와 통제의 차이를 사후분석인 Duncan의 다중비교수행 결과 남자 중학생이 남자 고등학생보다 높은 수준의 모의 통제를 보고하였다. 마찬가지로 여자 중학생이 여자 고등학생보다 높은 수준의 모의 통제를 보고하였는데 여고생과 남자 중학생이 지각한 모의 통제 수준은 동일하였다.

모의 애정적 거부에 대한 청소년 지각 및 모-자녀 지각의 차이와 청소년의 정서적 적응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어머니, 그리고 청소년의 담임교사에게 BASC(Kamphaus & Reynolds,

1992)를 실시하여 청소년의 정서적 적응을 부정적 적응기술수준과 긍정적 적응기술 수준을 평가하였다.

청소년의 정서적 적응

본 연구에 포함된 청소년들은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BASC의 기준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정상범위를 나타냈다(표 5). 구체적으로 외현화 문제행동(EB), 내현화 문제행동(IB), 그리고 전반적 부정적 정서적 증상(ESI) 척도로 평가한 부적응 수준은 BASC에서 제시된 임상적 수준(T score=60)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자기부적절감, 자아 존중감, 그리고 자기신임 등 자기정체감과 자아 강도의 수준으로 측정된 청소년의 긍정적 적응 수준(PA)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T score M=42.89)으로 위험수준(T score 40)에 가까웠다. 어머니가 평가한 청소년의 긍정적 적응기술 수준은 임상적으로 위험수준이다(M=39.15). 표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는 구체적으로 청소년 자녀의 사회성과 지도성에 낮은 점수를 주었다. 한편 교사는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 내면화 문제 행동, 그리고 전반적 부정적 정서증상을 포함한 부정적 적응과 긍정적 적응기술 모두를 정상

표 5. 청소년, 어머니, 교사가 평가한 청소년의 정서적 적응

		청소년(C)	어머니(M)	교사(T)
		M(SD)	M(SD)	M(SD)
EB	외현화 문제행동	48.24(7.37)	45.74(8.26)	46.48(7.20)
IB	내면화 문제행동	50.70(7.51)	47.35(9.14)	47.97(9.45)
PA	긍정적 적응기술	42.89(8.66)	39.15(7.72)	44.96(7.80)
ESI	전반적 부정적 정서증상	53.98(6.52)	47.16(8.28)	47.29(9.24)

EB=Externalized Behavior Problem; IB=Internalized Behavior Problem;

PA: Personal Adjustment; ESI=Emotional Symptoms Index

수준으로 평가하였으며 교사는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긍정적 적응기술 수준을 청소년 자신이나 어머니보다 높게 보고하였다.

청소년이 지각한 모의 애정적 거부와 정서적 적응의 관계

청소년이 지각한 모의 애정적 거부가 청소년의 정서적 적응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알아보기 위하여 청소년의 모의 애정적 거부 점수(CMR)와 청소년의 성별과 연령을 예측변인으로 청소년의 부적응 수준 즉, 외현화 문제행동(EB), 내면화 문제행동(IB), 전반적 부정적 정서증상(ESI)과 긍정적 적응수준(PA)을 각각 다중 회귀분석하였다(표 6). 모든 경우에서 연령은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제외되었고 성별 역시 외현화 문제행동(EB, 성별 $\beta = -.227$)의 경우만 유의미하였다. 청소년이 지각한 모의 애정적 거부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았고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을 보였다($F=38.749, p<.001$). 또한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애정적 거부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수준은 높아지고($F=33.262, p<.001$) 전반적 부정적 정서증상수준

또한 유의미하게 높아졌다($F= 36.368, p<.001$). 반면에 청소년이 지각한 모의 애정적 거부와 청소년의 긍정적 적응 수준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F=30.412, p<.001$). (표 6).

모의 애정적 거부에 대한 청소년과 어머니의 지각 차이와 청소년의 정서적 적응의 관계

모의 애정적 거부에 대한 청소년과 어머니의 지각의 차이와 청소년의 적응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각의 차이(DMR), 청소년의 성별과 연령을 예측변인으로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EB), 내면화 문제행동(IB), 전반적 부정적 정서증상 수준(ESI), 그리고 긍정적 적응기술(PA)을 각각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표 7). 모의 애정적 거부에 대한 청소년과 어머니의 차이가 클수록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증가하였고($F=33.738, p<.001$), 모의 애정적 거부에 대한 모-자녀의 지각의 차이가 클수록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수준과($F=28.256, p<.001$) 전반적 부정적 정서증상이($F=38.512, p<.001$)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 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성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행동($\beta = -.279$)과 전

표 6. 청소년이 지각한 모의 애정적 거부와 청소년 적응의 관계

		B	β	F	R	R ²																	
EB_C	CMR	.179	.555	38.749***	.621	.386																	
	성별	-3.336	-.227				IB_C	CMR	.194	.590	33.262***	.592	.350	PA_C	CMR	-.218	-.574	30.412***	.575	.330	ESI_C	CMR	.171
IB_C	CMR	.194	.590	33.262***	.592	.350																	
PA_C	CMR	-.218	-.574	30.412***	.575	.330																	
ESI_C	CMR	.171	.598	36.368***	.609	.371																	

* $p<.05$, ** $p<.01$, *** $p<.001$

CMR=Child Maternal Rejection: 청소년이 지각한 모의 애정적 거부

표 7. 모의 애정적 거부에 대한 청소년과 어머니의 지각 차이와 청소년의 정서적 적응의 관계

		B	β	F	R	R ²																				
EB_C	DMR	.171	.522	33.738***	.595	.354																				
	성별	-4.105	-.279				IB_C	DMR	.186	.555	28.256***	.561	.314	PA_C	DMR	-.221	-.571	30.444***	.575	.331	ESI_C	DMR	.176	.606	38.512***	.620
IB_C	DMR	.186	.555	28.256***	.561	.314																				
PA_C	DMR	-.221	-.571	30.444***	.575	.331																				
ESI_C	DMR	.176	.606	38.512***	.620	.384																				
	성별	-1.569	-.121																							

* $p < .05$, ** $p < .01$, *** $p < .001$

반적 부적응 정서 증상($\beta = -0.121$) 수준을 나타냈다(표 7).

청소년의 정서적 적응에 대한 청소년, 어머니, 교사의 평가

청소년의 정서적 적응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평가를 청소년의 자기보고와 비교하였고 사후검정으로 Duncan 다중비교를 수행하였다(표 8). 청소년의 부정적 적응 수준 즉, 외현화 문제행동 내면화 문제행동 그리고 전반적 부정적 정서 증상수준에서 어머니와 교사의 평가가 동일했으며, 이는 청소년의 자기보고보다 낮았다(EB, IB, ESI:

M=T < C). 따라서 청소년은 전반적으로 어머니와 교사에 비하여 자신의 부정적 적응 수준을 더 낮게 평가하였다. 한편 긍정적 적응기술 수준에 대한 평가는 어머니의 평가가 가장 낮고 교사의 평가가 가장 높았다(PA: M < C < T). 즉, 어머니가 청소년의 자기 존중감과 대인관계기술을 포함한 청소년의 긍정적 적응기술을 가장 낮게 평가한 반면, 교사는 이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정서적 적응에 대한 청소년의 자기보고는 어머니와 교사의 평가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부정적이어서 문제행동 수준은 높게, 긍정적 적응기술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어머니와 교사는 청소년의 긍정적 적응기

표 8. 청소년, 어머니, 교사가 지각한 청소년의 긍정적, 부정적 적응의 차이

	청소년(C)	어머니(M)	교사(T)	F	sig.	Duncan 검증
	M(SD)	M(SD)	M(SD)			
EB	48.24(7.37)	45.74(8.26)	46.48(7.20)	5.374	.005**	M = T < C
IB	50.70(7.51)	47.35(9.14)	47.97(9.45)	7.828	.000***	M = T < C
PA	42.89(8.66)	39.15(7.72)	44.96(7.80)	25.194	.000***	M < C < T
ESI	53.98(6.52)	47.16(8.28)	47.29(9.24)	43.890	.000***	M = T < C

* $p < .05$, ** $p < .01$, *** $p < .001$

M=Mother: T=Teacher: C=Child

술 수준의 평가에서만 차이를 보일 뿐 문제행동 수준의 평가에서는 견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의 정서적 관계의 질을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모-자녀 관계의 질과 청소년의 적응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모-자녀 관계의 질은 모의 애정적 거부와 통제에 대한 청소년과 어머니의 지각 그리고 그들의 지각의 차이로 평가하였다. 청소년의 적응은 내현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과 전반적 부정적 정서증상을 포함한 부적응 수준과 긍정적 적응기술수준으로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첫째 본 연구의 포함된 청소년들은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어머니로부터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애정적 거부, 즉 충분한 애정과 수용을 경험하고 또한 어머니로부터 적절한 수준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어머니 역시 자녀에게 거부보다는 애정과 수용을 그리고 적절한 수준의 통제를 한다고 보고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이고 애정적인 부모-자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자녀의 역동 안에서 자녀들이 어머니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애정적 거부를 보고함으로써 청소년 자녀는 그들의 어머니에 비해 모-자녀 애정적 관계의 질을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 모의 애정적 거부에 대한 청소년과 어머니의 평가도 자녀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어머니는 딸보다 아들들 더 거부하는 경향을, 구체적으로 남자 청소년 자녀에게 더 높은 수준의 적개심과 공격성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어머니들은 청소년기 자녀 중 딸보다는 아들에게 더 애정적 거부를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지각의 차이는 자녀에 대한 모의 통제에서도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어머니가 보고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의 통제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고 어머니는 아들, 딸 구별 없이 비슷한 수준의 통제를 한다고 보고하였으나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서 더 높은 수준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모-자녀의 관계지각의 차이는 모자 관계와 모녀 관계의 질이 각기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 포함된 청소년들이 전반적으로 충분한 애정과 수용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데 비추어 볼 때 지각된 모의 애정적 거부가 상승할수록 앞에서 언급한 성별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가를 후속 연구를 통해서 밝혀봄으로써 청소년기 모자 관계와 모녀관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잠재적 갈등과 불화의 원인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부적응 수준은 BASC의 기준으로 볼 때 임상적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청소년과 어머니 모두 자아존중감, 자기신임과 대인관계 기술 등으로 측정된 청소년의 긍정적 적응기술수준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포함된 청소년들이 전반적으로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는 청소년들이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고 높은 수준의 부적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들이 평가한 청소년 자녀의 긍정적 적응수준은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즉 어머니들은 자녀에게서 심각한 적응기술의 결여를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머니들은 청소년 자녀의 사회성과 지도력의 부족을 위험수준으로 보고하였고 사회적 적극성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였다.

셋째, 청소년이 지각한 모의 애정적 거부감이 높을수록 학교와 교사에 대한 부정적 태도, 위협감수, 부적절한 자극 추구의 경향성 등으로 대표되는 외현화 문제행동 그리고 불안, 통제 소재, 사회적 스트레스 수준 등으로 측정된 내면화 문제행동 그리고 우울, 자기 부적절감 등을 포함한 전반적 부정적 정서증상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 청소년이 지각한 모의 애정적 거부는 자아존중감, 자기신입과 대인관계기술 등으로 측정된 청소년 자녀의 긍정적 적응기술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모의 애정적 거부지각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대인관계에 부적절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앞의 결과들은 모의 애정적 거부와 청소년의 정서적 적응의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시사한다고 하겠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에 청소년들의 연령은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연령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는 청소년의 독립과 개별화(Grotevant & Cooper, 1986)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모-자녀 관계의 애정적 관계는 청소년 자녀에게 여전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본 연구에 포함된 남자 청소년들은 모의 애정적 거부의 지각이 높을수록 여자청소년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전반적인 부정적 정서증상을 보였다. 이는 모의 애정적 거부수준이 높을수록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 낮은 자기 적절감, 자아존중감을 보고한 재미 한인 청소년에 대한 선행연구(Ahn, 2002)와 같은 결과이고 한국의 남자 중학생이 여학생보다 모든 문제 행동 즉, 도덕적 문제 행동, 반사회적 문제 행동 공격적 행동을 많이 한다는 선행연구결과(고성애, 1998)와도 맥을 같이한다. 어찌면 남자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외현화 하는 경향을 보여줌으로 모-자관계의 부정적 정서와 갈등이 고조될

때 아들이 딸보다 문제를 더 외현화 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모녀 관계에서 통제에 대한 지각의 차이가 더 드러나므로 잠재적 불화의 소지를 더 가질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딸들이 경험하는 모-자녀간의 부정적 정서는 외현화 되지 않을 가능성 즉, 눈에 띄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의 양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혹은 갈등에 대한 대처방식의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후속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모의 애정적 거부에 대한 모-자녀 지각의 차이를 관계의 정서적 거리, 즉 관계의 정서적 지표로 가정하고 이 지각의 차이가 청소년 자녀의 전반적 적응/부적응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의 정서적 거부에 대한 청소년들과 어머니의 지각의 차이가 클수록 청소년의 부적응 수준은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 구체적으로 모의 애정적 거부에 대한 청소년과 어머니의 지각의 차이가 클수록, 청소년이 보고하는 학교와 교사에 대한 불만족 그리고 부정적 자극추구와 위협감수의 수준이 높았고 이는 또한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서 남자 청소년의 점수가 여자 청소년의 것보다 높았다. 또한 모의 애정적 거부에 대한 청소년과 어머니의 지각의 차이가 클수록 청소년이 보고한 불안, 사회적 스트레스, 그리고 신체화 증상 등을 포함한 내현화 문제행동 수준 역시 상승하였다. 아울러 청소년과 어머니의 지각의 차이가 클수록 불안, 우울, 자기 부적절감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부정적 정서증상의 수준 역시 상승하였는데 이때 남학생의 전반적 부정적 정서증상 수준이 여학생의 것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모-자녀 애정적 관계의 질에 대한 지각의

차이와 청소년의 정서적 적응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정서적 적응에 대한 청소년 자신, 어머니, 그리고 교사의 평가의 일치도를 알아보았다. 긴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야 하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교사의 관점이 중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부정적 적응수준에 대한 교사의 평가는 청소년의 자기보고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교사는 청소년에 비해서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그리고 전반적 부정적 정서증상을 포함한 부정적 적응수준을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였고 청소년의 긍정적 적응 기술은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교사는 청소년에 비해 청소년의 전반적인 적응상태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청소년의 부정적 적응수준에 대한 교사의 평가는 어머니와 시각을 같이 하였다. 따라서 교사는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적응에 어머니와 버금가는 그러나 또 다른 정보를 제시하였다. 특히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자기적절감등의 긍정적 적응기술을 또래관계와 같은 사회 관계적 맥락에서 관찰할 기회가 많고 따라서 더 객관적일 수 있는 교사의 평가가 어머니의 평가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보아 청소년의 정서적 적응에 대한 정확하고 포괄적 평가는 교사의 시각을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을 학교 및 사교육 현장에서 보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청소년의 적응과 정신건강의 영향요인에 대한 후속연구는 교사의 평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는 청소년 지도와 상담에도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끝으로 위의 결과는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어머니, 교사에 한해서 일반화 될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 고성애 (199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옥 (2000). Cornell Medical Index 를 통한 고등학교 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아, 하은혜, 오경자, 김소라 (1996). 한국의 부모와 교사들의 아동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5(1), 45-53
- 김정미 (2003). 청소년의 애착유형과 비합리적 신념 및 공격성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영 (1996). 부모의 양육태도와 여고생의 정신건강과의 상관관계. 성신여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정식 (1996).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심리유형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승하 (1997). 중등학생의 정신건강상태가 학교생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낙오 (1993). 청소년의 정신적 건강과 학업성취도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병환 (1999). 고등학생의 자아분화 및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대구효성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경섭 (1996).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 정신건강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송이 (1998). 청소년기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유진 (1999).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수 (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수준, 반발심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인 (1993). 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조사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운 (2000).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애착 및 사회성 간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귀화 (1998). 청소년들의 비합리적 신념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천자성, 곽영숙 (1998). 학생들의 정신건강문제와 정신과 의뢰에 대한 교사의 인식도 조사. *소아 청소년정신의학*, 9(1), 82-90
- 하은혜, 이수정, 오경자, 홍강의 (1998). 문제행동에 대한 청소년 자신과 부모 평가간의 관계: K-CBCL과 YSR의 하위요인 구조비교. *소아 청소년정신의학*, 9(1), 3-12
- 한희 (1996). 서울 시내 일부 중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와 숨은 비행과의 관계분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정연 (2003).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분리-개별화 수준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hn, M. H. (2002). *Interpersonal Perception and Adolescent Emotional Adjustment: Nature and implications of discrepancy in perception between mothers and adolescents and adolescent emotional adjustment*.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NY.
- Allen, J. P., Hauser, S.T., Eickholt, C., Bell, K.L., & O'Connor, T. G., (1994). Autonomy and relatedness in family interactions as predictors of expressions of negative adolescent affect. *Journal of Research in Adolescence*, 4, 535-552.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3-96.
- Cassidy, J. & Berlin, L. J. (1994). Avoidance and its relation to other defensive processes. *Child Development*, 65, 971-991.
- Cicchetti, D., & Toth, S. L. (1995).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and disorders of affect. In D. Cicchetti & D. J., Cohen (Ed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Risk, Disorder, and Adaptation* (pp. 369-420), New York, N.Y.: Wiley.
- Collins, A. W. (1990).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the transition to adolescence: Continuity and change in interaction, affect, and cognition. In R. Montemayor, G. R. Adams, & T. P. Gullotta (Eds.), *Advances in adolescent development: An annual book series: Vol.2.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A transitional period?*
- Conger, R. D. & Ge, X. (1998). Conflict and cohesion in parent-adolescent relations: changes in emotional expression from early to midadolescence. In M. J. Cox & J. Brooks-Gunn (Eds.), *Conflict and cohesion in families: Causes and consequences*(pp. 185-206).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Davey, L. F. (1993). *Developmental implications of shared and divergent perceptions in th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Dissertation Abstract International. Vol. 54 (1-B), 517.

- Davey, L. F. (1994). *A path analysis of the effects of shared perceptions in the family during adolescence*. Post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Adolescence, San Diego, CA.
- Demo, D. H., Small, S., & Savin-Williams, R. (1987). Family relations and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4), 705-715.
- Dix, T. (1991). The affective organization of parenting: Adaptive and maladaptive processes. *Psychological Bulletin*, 110(1), 3-25.
- Grotevant, H. D. & Cooper, C. R. (1986). Individuation in family relationships: A perspective on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 of identity and role-taking skill in adolescence. *Human Development*, 29, 82-100.
- Harter, S. (1990). Self and identity development. In S. Feldman and G. Elliot (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352-387.
- Hoffman, M. L. (1982). Development of prosocial motivation: Empathy and guilt. In N. Eisenberg (Ed.),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pp. 281-311). New York, NY: Academic Press.
- Holmbeck, G. N., & O'Donnell, K. (1991). Discrepancies between perceptions of decision-making and behavioral autonomy. Shared views in the family during Adolescence: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51, 51-69.
- Kobak, R., Ferenz-Gillies, R., Everhart, E., Seabrook, L. (1994). Maternal attachment strategies and emotion regulation with adolescent offspring.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4(4), 553-566.
- Kobak,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Kuczynski, L., Marshall, S., & Schell, K. (1977). Value socialization in a bi-directional context. In J. E. Grusec (ed.), L. Kuczynski, et al (Eds.) *Parenting and children's internalization of values: A handbook of contemporary theory*. (pp.23-50). New York, NY: Wiley.
- Laursen, B., & Collins, W. A. (1994). Interpersonal conflict during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15(2), 197-209.
- Litovsky, V. & Dusek, J. (1985). Perceptions of child rearing and self-concept development during the early adolescent years.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14(5), 373-387.
- Lollis, S. & Kuczynski, L. (1997). Beyond one hand clapping: Seeing bidirectionality in parent-child realtion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 14(4), 441-461.
-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P. H. Mussen (Series Ed.), & E. M. Hetherington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Vol. 4). (1-101). New York, NY: Wiley.
- Ohannessian, C. M., Lerner, R. M., Lerner, J. V., & von Eye, A. (1995). Discrepancies in adolescents' and parents' perceptions of family functioning and adolescent emotional adjustment, *Journal of Early Youth*, 15(4), 490-516.
- Paikoff, R. L., Carlton-Ford, & Brooks-Gunn (1993) Mother-Daughter Dyads view the family:

- Associations between divergent perceptions and daughter well being. *Journal of Adolescence*, 22(5), 473-492.
- Papini, D. R., & Micka, J. C. (1991). Synchronization in ratings of pubertal mutuality and faulty beliefs about family relationships. Shared views in the family during adolescence.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51, spring, 33-49.
- Pelton, J., & Forehand, R. (2001). Discrepancy between Mother and Child Perceptions of Their Relationship: I. Consequences for Adolescents Considered within the Context of Parental Divor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6(1), 1-15.
- Reynolds, C. R., & Kamphaus, R. W. (1992). Behavioral Assessment Scale for Children: Self Report of Personality-Adolescent (ages 12-18). *American Guidance Services*.
- Rohner, R. P. (1999).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Storrs, CT: Rohner Research.
- Smetana, J. G. (1988). Adolescents' and parents' conceptions of parental authority. *Child Development*, 59, 321-335.

원고접수일 : 2004. 6. 4
수정원고접수일 : 2004. 10. 13
게재결정일 : 2004. 11. 11

K C I

Mother-Child Relationship and Adolescent Emotional Adjustment

Myung-Hee Ahn

Dongduk Women's University

Hae-Rim Choi

So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mother-child relationship and adolescent emotional adjustment in order to identify potential risk factors for adolescent emotional adjustment. The study examined the perceived maternal rejection and control from the adolescent and mother's perspectives and determined the mother-child discrepancy. Secondly,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perceived and mother-child discrepancy in maternal rejection and adolescent emotional adjustment were examined. Additionally, mother and teacher evaluation of adolescent emotional functioning were compared to determine the relative importance of teacher evaluation as a useful source of information with regard to the status of adolescent emotional adjustment. A total of 389 subjects (N=389), including 189 adolescents and their mothers (n=189) and homeroom teachers (n=15) participated in the study. Findings indicated that while adolescents reported considerable maternal warmth and acceptance, which their mothers reciprocated,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mother-child difference in perceived maternal rejection and control. The greater the child perceived maternal rejection, the greater was the levels of child externalizing, internalizing, and overall emotional symptoms while the lesser was the level of child adaptive skills. Mother-child discrepancy in perceived maternal rejection was also related to child emotional functioning with the greater the difference, the greater the level of child externalizing, internalizing, and overall negative emotional symptoms and the lesser the level of child adaptive skill. Gender related findings indicated that mothers reported greater hostility and aggression toward sons than daughters. On the other hand, daughters reported more maternal control compared to sons although mothers did not report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control toward daughters. With greater maternal rejection and greater mother-child discrepancy in maternal rejection, boys report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externalizing behavior and overall emotional symptoms than girls. Finally, teacher evaluation of adolescent emotional adjustment showed significant concurrence with mother evaluation, indicating its usefulness as an informant of the status of adolescent behavior problems.

Key Words : Adolescent adjustment, Maternal rejection, Divergence in Perception, Teacher Perception, Mother-Child Relationship